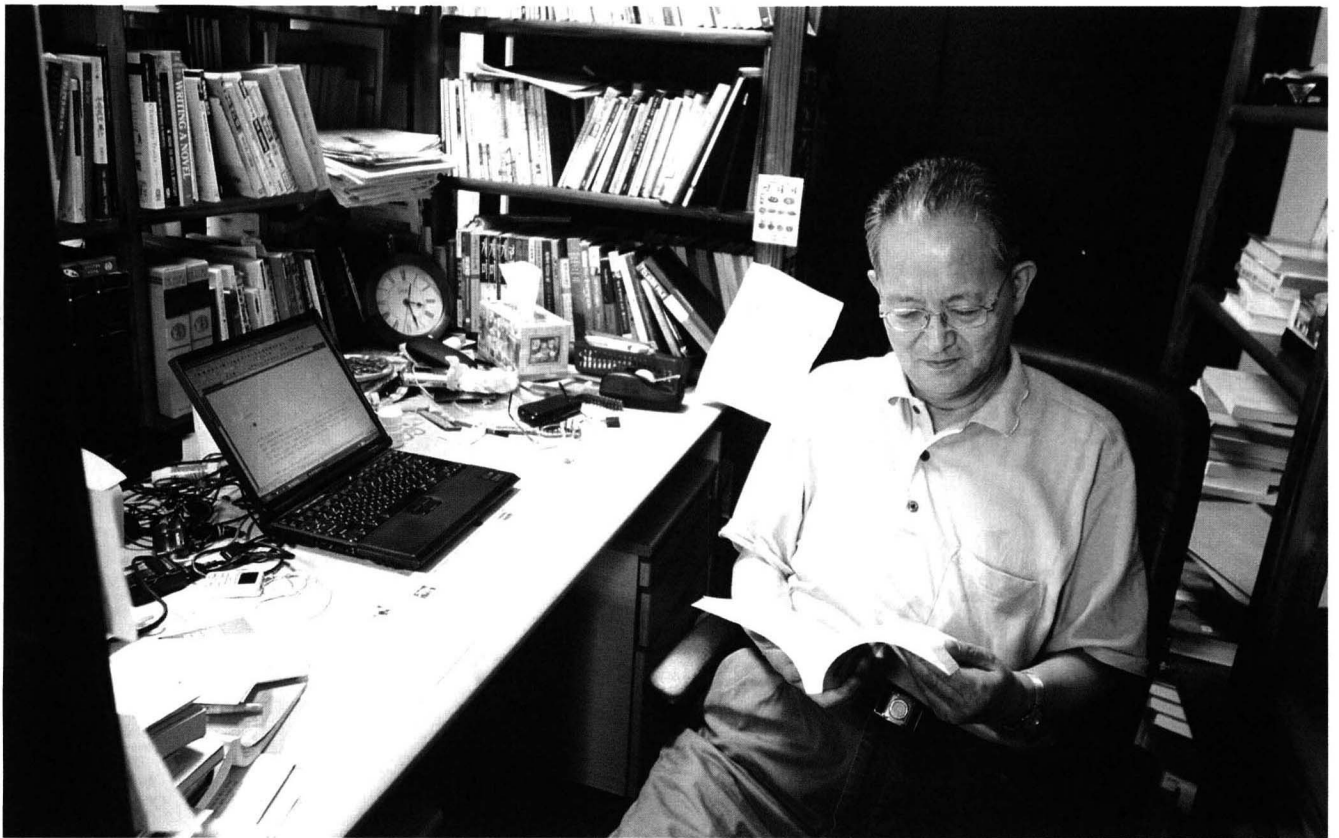


음악과 문학,

내 삶을 이룬 자양분





선생의 책장엔 소설, 철학서, 문학 관련 월간지가 빼곡하다. 창작을 위해 장리를 가리지 않고 소설을 많이 읽는 편. 음악서들은 모두 학교 연구실에 비치하고 있다.

이 강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의 서재는 요새 같았다. 똑같은 책장을 여러 개 구입해 책상을 중심으로 사면을 둘러 배치했다. 팔을 뻗으면 어느 방향에서건 책이 손에 닿는다. 안에 서건 밖에서건 보이는 건 책 뿐이다. 노트북과 스탠드, 각종 자료가 구비된 움푹한 공간에 파묻혀 선생은 책을 읽고 소설을 쓴다.

“주로 새벽에 일어나서 작업해요. 집중이 잘 되니까. 이곳이 나만의 ‘우주’입니다.”

저녁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면 새벽 2,3시경에 일어나 일을 한다. 가장 조용한 시간, 혼자만의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이 이 교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과가 됐다. 노트북에는 작업중인 소설 파일들이 꽤 많이 저장돼 있다.

“젊은 때는 음악평론을 많이 했습니다. 은퇴 전의 삶에 여러 속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온전한 나의 것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후회가 돼요. 요즘은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어 참 좋습니다.”

부인 문화자 여사와 단출하게 생활하는 그의 집은 주거공간이자, 두 예술인의 작업실을 겸한다. 선생의 서재는 소설이 탄생하는 곳. 반대쪽 방은 그림이 탄생하는 곳이다.

“각자의 공간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지내는게 참 흐뭇합니다. 거실

이강숙은 ...

1936년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음악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KBS 교향악단 총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음악학술 계간지 <낭만음악>을 발행하고 있으며, 2001년 <현대문학>에 단편 「빈병 교향곡」으로 등단했다. 지은 책으로 <열린 음악의 세계>, <음악의 이해>, <한국음악학>, 산문집 <솔과 아내 그리고 예술>, 장편소설 <피아니스트의 탄생> 등이 있다.

은 우리 둘 모두의 장소구요.”(웃음)

최근 첫 소설집 《빈병 교향곡》을 펴낸 이 교수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한국 음악계 명사다. 서울대 음대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을 지내며 누구보다 바쁜 현역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2001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2004년에 장편 《피아니스트의 탄생》을 출간하며 은퇴 후 본격적인 ‘문학’의 길을 걷고 있다. 음악가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그가, ‘문학과’의 짧은 이별 한 토막을 회고했다.

숫기 없던 중학생 시절, 소년이 좋아하던 과목은 국어와 음악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두 교과목 ‘선생님’을 좋아했다. 국어 선생님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국어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돼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국어시간, 선생님은 학생 모두에게 ‘시’를 써보라고 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시를 쓴 소년은 자신의 것을 일부러 골라 내 보는 선생님을 긴장한 채 쳐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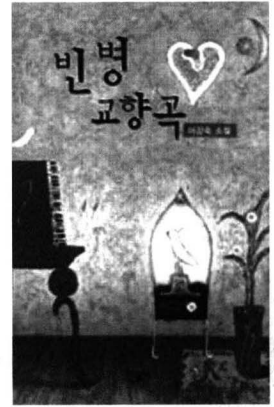
“노래는 잘 불러도 시 쓰는 건 엉망이구나.”

기가 죽었다. 선생님의 한마디는 감수성 예민한 소년의 학창시절에서 ‘문학’이란 단어를 쑥 뽑아 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흠모하던 국어 선생님을 졸업 때까지 피해 다녔다.

중학시절의 ‘아픔’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사라졌다. 오히려 대학시절 이후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문학열정은 습작과 문학 공모 출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성과가 좋진 않았다. ‘난 소질이 없나보다’라고 체념했음에도 평생 문학을 향한 알 수 없는 응어리가 마음에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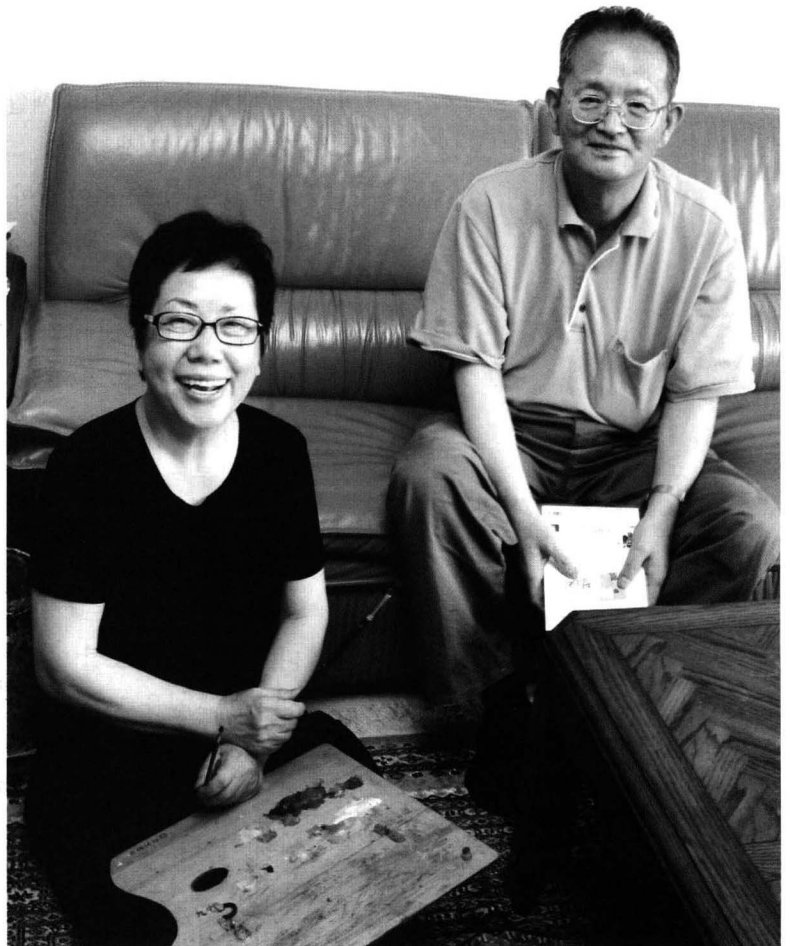
“음악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한편에는 문학에 대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죠. 언젠가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살아 있었어요.”

한 번도 따로 소설 창작이나 문학 수업을 받은 적이 없이 ‘완벽하게 혼자’ 열정과 실력을 키워나갔다는 그의 작품에서는 문학과 음악, 똑같은 함량의 애정이 담겨 있다. 음악은 이 교수의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다. 최근 출간한 소설집의 표제작 <빈병 교향곡>을 비롯해, 9편의 단편 모두에서 음악가와 음악 이야기가 등장한다.



《빈병 교향곡》
이강숙 지음 | 민음사 | 325쪽 | 값 9,500원
음악계 은퇴 후 소설가로 변신한 이강숙 박사의 첫 소설집 빈병 교향곡 '즉흥연주를 하는 사람들' '고구만의 무덤' 등 삶을 관조하는 작가의 경험이 곳곳에 묻어났다. 음악을 소재로 한 9편의 단편이 담겨있다.

▽40년을 인생의 반역자로 동고동락한 이강숙·문화자 부부. 관심분야는 다르지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함께 즐기는 노년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위) 서재에 들어서면 독특하게 배치된 책장이 보인다. 그 사이에는 이 교수의 작업용 책상이 놓여 있다.

(아래) 취미로 유화를 그리는 부인 문화자사의 작업 공간. 집안 곳곳에 걸린 그림들이 모두 문 씨의 작품이다.

▷미국 유학시절 마련한 그랜드피아노는 그의 '음악인 생'을 말해주듯 깊이 있고 풍부한 음색을 간직하고 있다. 소설창작에 바빠 아주 가끔씩 연주한다.

“물론 경험을 배제할 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음악뿐 아니라 인간 삶의 일반적인 여러 문제점들을 다루고자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인간이 개체주의자의 입장에서 사는 방식과 전체주의자의 입장에서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각각의 입장을 가진 인물을 설정해서 두 사상이 서로 협조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과정, 그로 인해 사회가 움직이고 역사가 움직이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과 정치와의 관계가 그렇겠죠.”

이 교수에게 ‘예술’이라는 공통분모 속 문학과 음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사뭇 진지해졌다.

“음악과 문학을 정의할 때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직 문학을 정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흔히 음악이라고 하면 말과 관계없는 순수한 음향, 즉 기악성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악과 문학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 이겠고, 차이점이라면 그 욕망을 나타내는 ‘표현매체’ 겠죠. 쉽게 말하면 문학은 기악성을 배제한 이야기, 음악은 음과 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매체가 다르니까 소설과 기악성은 많이 다르지만, ‘자기 경험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의 결과물’이라는 정의 안에서서는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소설에서 “자기 음을 찾는다”고 말했다. 문학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음악으로 가능한 ‘자신만의 음’이란 것을,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해 자기 색깔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원하는 나의 색깔, 즉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은 구태의연하지만 진, 선, 미라고 생각해요. 그 세 가지를 끌어안고 사는 인생이겠죠. 일상적인 삶에 묶여 할 수 없이 살아가지만, 좀 더 진실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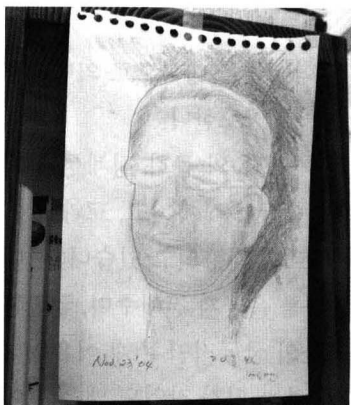
그는 은퇴 후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며칠 전엔 제주도에서 음악 특강을 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대학가 특강을 비롯해 현역 활동가 못지않은 강연 일정이 잡혀 있다.

태생부터 ‘소설가’는 없었지만 누구보다 오랜 시간 다른 길을 우회해 ‘드디어’ 갖게 된 소설가라는 호칭을 그는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 작품을 위해 다양한 소설적 표현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방이 고요한 이른 새벽. 이강숙 교수는 자신만의 '우주'에서 문학산책을 즐긴다. 쓰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시간이 늘 아쉽다.



부인 문희자씨가 그린 이강숙 교수의 초상화. 서가 한켠에 걸려 있다.

아무래도 가족과 제자, 주변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부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이제껏 지나온 '음악인 이강숙'의 테두리, 그 구속장치(형식) 안에서 문학이라는 '즉흥연주'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내 글에 대해 냉정하게 말 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아내가 가장 냉정한 독자인 셈인데 이상하게 소설에 대해선 별 말이 없네요.”

문 쓰는 강력한 후원자로 조력자로 40여 년을 함께 해 온 독자인데도 왜 이 교수의 소설에 한마디 언급이 없을까만, “창작자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고 싶지 않아서”라는게 부인의 담담한 대답이다.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만난 부인 문희자 씨는 전직 국어 선생님이다. 당시에 교수가 맡았던 교과목이 '음악'이었으니 중학생 시절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두 교과목 선생님끼리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할까.

이 교수는 이제 분명 전업작가다. “은퇴했으니 아무래도 관심을 더 쏟게 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책이 잘 팔리는 대중소설을 쓰겠다는 것과 거리가 있어요. 책이 좋으면 사람들이 널리 알려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내 글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일흔'이라는 물리적인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에겐 이제 막 문학의 참맛을 느낀 청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

취재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